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1. 5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튀르키예, ISIS 연계 무장세력 32명 구금
  - 12.29 언론은 튀르키예 보안군이 유대교회당, 이라크대사관에 대한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ISIS와 연계된 32명을 구금했다고 보도

#### 미주

- 美 일부 州, 강화된 총기 규제법 시행
  - 12.31 언론은 캘리포니아州的 총기단속법이 위헌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법원이 효력을 일시 정지시킴에 따라 '24.1.1부터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
    - ※ 일리노이州에서는 반자동 소총 등의 소지가 금지
- 美, 총기규제 강화에도 총격사건으로 20여명 사상
  - 1.2 언론은 올해 미국 일부 州에서 공공장소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등 총기규제를 강화했으나, 새해 첫날부터 미국 각지에서 총격사건\*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
    - \* LA에서 신년맞이 행사도중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, 그외에도 시카고·보스턴 州 등에서도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총 8명 사망·10여명 부상

#### 아·태평양

- ISIS 상대한 美軍부대 '24년 韓 배치
  - 12.28 언론은 美 국방부가 '18~'19년 중동에 배치되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(ISIS)와 교전한 美 육군 제3기갑군단 예하 '브레이브 라이플스' 여단을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
    - ※ 한국 순환군으로 지정된 부대는 9개월간 복무 예정

## 중 동

### ○ 美 해군, 홍해서 후티叛軍과 교전

- 12.31 언론은 親이란 후티叛軍이 홍해를 통과하던 머스크(MAERSK) 선박을 공격하자 美 해군은 헬기를 출격시켜 반군 선박 4척 중 3척을 침몰시키고 10명의 무장세력을 사살했다고 보도

※ 미군은 “계속해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며,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同 지역에 필요한 병력을 배치할 것”이라고 강조

### ○ 시리아, 작년 內戰으로 4천 3백여명 사망

- 1.1 언론은 '23년 시리아 內戰으로 전투원과 민간인 포함 4,300여명이 사망, 사망자 중 정부군에 피살된 사람은 9백명이었고 나머지는 ISIS 등에 의한 사망자이며, 이는 전년 대비 535명이나 많은 숫자라고 보도

※ 시리아는 13년간의 내전으로 지금까지 50만명이 사망

### ○ 이스라엘, 병력 일부 철수로 '저강도 장기전' 전환

- 1.2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약 2만 명 규모의 5개 여단 병력을 순차적으로 가자 지구에서 철수할 예정이며, 미국도 2개 항모전단 중 하나를 철수시키면서 전쟁이 '저강도 장기전'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도

※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총 병력을 공개하지 않아 잔여 병력 규모는 알 수 없으며, 특수부대와 공병대가 하마스의 땅굴작전에 대응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언

## 아프리카

### ○ 우간다, 민주연합군\*(ADF) 테러단체 지도자 사살

- 12.28 외신은 우간다 국방군이 최근 2번의 테러를 주도하여 민간인 13명을 살해하는 등 自國民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테러를 시행한 민주연합군의 지도자 「무사 카무시」를 사살했다고 보도

\* ISIS, 알카에다, 알샤바브 등과 연계하여 東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미국이 '21.3월 테러단체로 지정

시리아, 기독교인 겨냥 연쇄 자살폭탄테러

- '15.12.30 시리아-튀르키예 국경도시 카미실리\* 소재 식당 3개소에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, 최소 16명 사망하고 35명이 부상
  - \* 튀르키예·시리아가 국경을 접한 곳으로 자치정부를 선언한 쿠르드족과 시리아 정부가 지역을 나눠 지배하고 있으며, 아시리아인 등 다양한 민족이 거주
- 시리아인권관측소(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)는 기독교 신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겨냥한 同테러 배후로 'ISIS'를 지목하며
  - “최근 ISIS가 쿠르드족 인민수비대가 시리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ISIS 격퇴 작전에 반발하며 각종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”고 언급
- 이후 '19년에도 同 지역에서 ISIS에 의한 유사 테러가 발생하면서, 종교적 테러로 인한 기독교인들의 안전이 지속 위협받게 되자
  - 가톨릭교회 관계자는 “시리아 및 튀르키예 정부가 카미실리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보호할 책임이 크다”며, 안전 강화 조치를 강력히 촉구

— < 이라크·시리아 이슬람국가(ISIS) > —

- (목표/이념) 시리아·이라크 등 중동 전역을 아우르는 이슬람국가 건설 / 이슬람극단주의
  - ※ 테러단체 지정 : UN('04.10), 미국('04.12), 캐나다('12.8) 등
- (연계세력) ISIS-호라산, 西아프리카·시나이 지부 등 24개 지부
- (핵심인물) 아부 알 후세인 알 후세이니 알 쿠라이시
- (활동지역) 이라크 서·북부 및 시리아 동부지역
- (활동수법) 시리아내 점령지 상실('19.3) 이후 잔당이 게릴라식 테러를 지속중인 가운데 북아프리카·아프간·동남아 등지로 이동, 재건모색
- (주요동향)
  - '04.6 이라크 팔루자 지역에서 아국인 근로자 「김선일」 납치·살해 주도
  - '11.5 빈라덴 사망 보복으로 이라크 힐라에서 자폭테러 자행 경찰 96명 사상
  - '18.7 시리아 스웨이다에서 총기 난사 및 자폭테러 자행, 246명 사망